



6면

국제종자박람회, 14일간의 일정 돌입

전주매일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음 9월 19일) 제311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함소아제약은 13일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익산공장에서 공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주)함소아 최혁용 회장, (주)함소아 CEO 약 조현주 사장 및 기업 임직원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글로벌 한방제약 대표기업 익산 제3일반산업단에 '안착'

함소아제약 익산공장 본격 가동... 500여억원 투자
FDA 인증 충전기 설비 갖춰 완제품 해외수출 가능

익산 제3일반산업단에 글로벌 헬스케어 한방제약기업 (주)함소아제약(대표 이사 최재욱)이 익산공장 본격 가동을 알리며 익산시가 다시 한번 레드바이오산업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함소아제약은 13일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익산공장에서 공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주)함소아 최혁용 회장 (주)함소아제약 조현주 사장 및 기업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공장 준공을 축하했다.

(주)함소아제약은 지난 2020년 5월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2만9,573㎡ 부지에 지 금까지 500여억 원 투자를 통해 전략적 생산기반인 익산공장을 준공했다.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따라 80명의 신규 고용이 유발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가봉 등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주)함소아제약은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으로 세분화하여 최고의 제품을 선보이면서 한방 시장의 산업화, 대중화, 세계화에 앞장 서고 있다.

우수한 인력 양성, 천연물 신약 연구, 안전한 한방 의약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익산공장 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본격 생산에 들어가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 했다.

익산공장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해 세계 최초 무균 포장기술을 도입한 테트라팩스웨덴에서 전라인 자동화생산 라인을 설비했다. 이에 따라 FDA가 인증한 전처리 및 충전기 설비를 갖춰 완벽한 품질 관리 및 완제품 해외수출이 가능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최근 침체된 경제 상황에도 익산시에 투자를 해주시는 (주)함소아제약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주)함소아제약이 익산시에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익산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함소아제약의 모기업인 (주)함소아는 신동 일원에 연면적 528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어린이 전문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토·일요일신문 습니다.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본격 시동

전북신보 이사회서 설립 통과... 2025년까지 820억원 투입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에 따르면 전북국제금융센터를 시행하는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은 13일 이사회를 열어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안)'을 통과시키고, 2025년까지 8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북신보 기본재산 투입에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표류했던 금융센터 건립사업이 전북도, 전북신보, 중

기부 간 신뢰가 쌓이면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순풍을 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인접 대지에 지상 11층 규모의 금융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를 위한 기반시설인 입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금융센터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자산 운용사, 은행, 증권회사와 금융 공기업 등의 유치가 가능한 업무시설, 세미나실, 투자상담실 등으로 활용한다.

또한 국제금융센터를 전북신보 사옥으로도 활용하면서 자산운용 특화금융과 지역 중소기업인 지원 정책자금 운용조직, 기금운용본부와 연계를 통한 기금운용 수익 극대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북신보는 사옥 건립을 통해 신용보증 위주 업무뿐만 아니라 창업·보증컨설팅·재기 지원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윈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지역 중소기업 인을 위한 경제 안방이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한편 전북도는 금융도시 인프라를 위한 금융센터 건립과 함께 지역 금융

여건 성숙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제금융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자산운용사와 연계 대학별 특화 금융교육을 진행 하고 있다.

정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시화 시 유관부서 및 여야 협치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산업발전위원회, 금융학술대회·전문가토론회 등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전북도 윤동욱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결정은 '이번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결정을 신호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 금융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잘 싸웠다! 전북'... 전국체전 폐막

금 38 · 은 56 · 동 82개 등 메달 총 176개 획득
역도 유동주, 인상 · 용상 · 합계 모두 1위 차지
삼양사팀, 자전거 경기서 개인 · 단체전 '선전'



주(진안군청)는 88kg급에 출전해 인상과 용상 합계 모두 1위를 차지해 3관왕을 달성했다. <관련기사 15면> 또 펜싱의 권영준(익산시청)과 배

드민턴의 박희영·장병찬(원광대), 산악 이도현(전북협회), 체조 이상욱(전북도청), 수영의 한다경과 김혜진(전북체육회), 자전거 이은희(삼양

사) 등은 2관왕을 하며 전북 체육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와 함께 양궁 박진영(전북도청), 철인3종 김지환(전북체육회), 바둑 김민지(전북협회), 육상 김태희(이리공고), 레슬링 김도현(전북체고), 육상 김지은(전북개발공사), 태권도 윤준혁(전북체고) 등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 치러진 자전거 경기에서는 삼양사팀이 압도

적인 경기력을 뽐내며 전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 개인도로 단체전에 서 금메달을 획득한 삼양사는 개인 경기에서도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씩쓸이 하는 기염을 토했다.

아울러 철인3종은 사상 첫 종목 중历史性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처럼 전북 선수단의 선전 속에 당초 예상했던 금메달 수(33개)보다 더 많은 메달을 확보했지만,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단체 종목에서 부진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체전 기간동안 전북체육회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사기 진작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북스포츠포드 과학센터 연구원들과 선수트레이너를 현장에 파견, 밀착지원을 펼쳤다.

또한 전북 선수단 단장인 정강선 회장을 비롯한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원로 체육인 등도 각 종목 선수들과 지도자를 격려했다.

정강선 회장은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친 우리 선수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먼저 전하며, 아쉬움이 남는 체전이지만 전북 체육은 앞으로 더욱 비상할 것"이라며 "전북 선수단을 응원해 준 도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엘리트 체육은 물론이고 생활체육, 학교체육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부안군의회

추! 전주매일 창간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

 김광수 의장	 이현기 부의장	 김두례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진 자치행정위원장	 박태수 산업건설위원장
 이용님 의원	 박병래 의원	 김형대 의원	 이강세 의원	 이한수 의원

포털사이트에서 부안군의회 을 검색하세요

https://council.buan.go.kr